

장성 신소득 아열대작물 레몬 첫 수확

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작물 육성 재배 2년만에 올 12농가 7t 결실 직거래·백화점 납품으로 전량 판매

11월에도 한낮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지역 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작물 재배의 기회가 되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12일 삼서면 삼계리 시설하우스 단지에서 신소득 작물로 육성한 '장성 레몬'을 처음으로 수확해 출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성 레몬'은 지난 2022년 전남도가 공모한 신소득원 원예특화단지 사업에 선정된 지 2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특히 지난해 전남도농업기술원의 '맞춤형 미래 전략 소득작목 육성시범'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삼서면에 본격 조성한 레몬재배 단지는 12농가 3.9ha 규모로 내륙에서 가장 크다.

재배단지엔 '이상기후 대비 내(耐)재해형 시설 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 등을 갖췄다.

올해 예상 수확량은 7t으로 신세계백화점 납품, 경상북도 농산물 직거래 행사, 온라인 직거래, 삼서농협 출하, 레몬 가공품 생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량 판매된다.

수확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100t까지 수확량



김한중(왼쪽) 장성군수가 지난 12일 삼서면 삼계리 시설하우스 단지에서 신소득 작물로 육성한 '장성 레몬' 수확을 거둔다. <장성군 제공>

이 늘어날 전망이다.

레몬은 국내에선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레몬에는 방부제와 왁스처리가 되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레몬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상품성과 경쟁력을 고루 갖춘 장성 레몬이 전남을 대표하는 아열대 과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아열대 작물 재배 활성화로 국가 미래 농업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입교역 달시장 판매장터 열린다

내일 파크골프장 나들목 깃듬정

화순군은 오는 16일 화순입교역 달시장 판매장터(화순군 청풍면 차포로 681)가 깃듬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화순입교역 달시장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입교역은 현재 폐쇄됐지만 기차가 지나가는 풍경을 즐기면서 장을 보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번 판매장터는 화순군농업인대학 유통마케팅과 교육생들이 주축이 돼 시작된 행사로 지역 농가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다양한 농특산물을 지역 주민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장이다.

행사는 마을주민 농산물과 지역 농특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는 부스가 마련되며, 수작업 제품, 즉석 제조 간식류, 전통주 및 음료 체험 부스 등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첫 행사 첫 팔죽'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팔죽은 역운을 쫓는 음식으로 지역 주민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류창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대학 교육생들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직거래 장터를 열게 돼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이 판매장터가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즐길 거리와 체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창평 슬로시티 방문자센터에서 슬로시티 서포터스와 마을 주민이 함께한 '슬로마을 팜파티'가 열렸다.

슬로시티 담양 창평 '슬로마을 팜파티' 성료

담양군은 최근 창평 슬로시티 방문자센터에서 슬로시티 서포터스와 마을 주민이 함께한 '슬로마을 팜파티'가 성공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슬로마을 팜파티는 지역 농특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슬로시티의 특색을 확산하기 위해 마을주민과 지역 농특산물 생산자, 체험 운영인들이 함께 하고, 슬로시티 서포터스들의 자발적인 기획과 운영으로 만든 자립형 축제다.

행사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꼬치구이 화덕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바자, 통기타 공연으로 채워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판매된 물품의 포장지에는 생산 마을과 생산자 이름이 적혀 있어 구매자가 생산자와 직접 연결되고 다시 구매로 이어지는 신뢰가 형성될 수 있어

방문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군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창평국밥 전문음식점과 대표 먹거리를 소개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해 홍보물과 식음료 예방을 위한 종이비누를 방문객들에게 나눠주며 남도음식거리로 지정된 창평국밥거리를 홍보했다.

한 방문객은 "주민들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설명 덕분에 담양 특산물과 슬로시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팜파티에 참석한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행사는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자립형 축제의 모델을 구축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서포터스와 함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

호남통계청 통계사례 공모전 합평군 '청년통계 활용' 장려상

합평군이 호남지방통계청 주관 '지역 통계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지역 정책 수립에 활용된 통계 우수 사례를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된 공모전은 52개 광역·기초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열렸다. 합평군은 '청년통계를 활용한 청년 맞춤형 정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사업을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의 합평군수는 "통계 자료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추진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합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 표고버섯 신품종 시범재배 농가 간담회

홍화1·2호 재배 확대 방안 등 논의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최근 지역특화 표고버섯 신품종으로 개발한 '홍화1·2호' 시범 재배 농가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홍화1·2호의 시범 재배 성과와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재배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의 홍화 1·2호의 시범 성과와, 장흥군농업기술센터의 장흥표고버섯 안정생산 스마트화 기반 조성사업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또 시범 재배 농가와 홍화1·2호의 재배 확대·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홍화1·2호는 기후변화, 외래품종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지역맞춤형 원목 표고 신품종으로 16개 농가에서 5600본을 시범 재배 중이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오는 19일 홍화1·2호의 시범 성과에 대해 재배 농가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보고회를 개최한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개발한 원목표고 신품종인 홍화1·2호가 조기 정착되고 차별화 육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보건소 수능 수험생 치아 무료 스케일링

연말까지... 18일부터 예약

나주시가 수확능력시험을 치른 지역 고교생들에게 무료 스케일링 이벤트를 진행한다.

나주시는 오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본인 명의 수험표를 지참한 고교생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보건소 본소 구강진료실에서 무료 치아 스케일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료 스케일링은 평소 학업으로 인해 구강 건강 관리가 어려웠던 수험생들을 위한 이벤트로 구강검진, 1대1 맞춤형 구강건강관리교육, 불소양치용액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사전 전화 예약 후 수험표를 지참해 나주시보건소 구강진료실을 방문하면 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